

# 『2022 GRIT 필수편 (문학)』 정오표 (~04/20)

페이지	이전 내용	수정 사항
<p>문제편 p.20 본문</p>	<p>[A] 심 씨는 신발도 신을 겨를이 없이 얼어질락 자빠질락 중문 밖으로 뛰어나갔다. 화춘이 봉두난발에 귀신같은 행상을 하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. 마침내 심 씨 모자는 서로 끌어안고 통곡을 했다. 화 부인도 울면서 화춘을 부축하며 마루로 올라갔다. 그러나 화춘은 화 부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. 아아! 사람은 곤궁하면 본연의 착한 심성으로 돌아가는 법이다. 저들 모자가 곤액을 겪지 않았더라면 어찌 저렇게 될 수 있었겠는가?</p>	<p>격삭 위치 수정 (‘아아!~있었겠는가?’ 까지가 [A]입니다.)</p>
<p>문제편 p.100 4번 문제</p>	<p>③ ‘장 승상 댁 부인’을 향한 ‘심청’의 고마움과 미안함이 드러난다.</p>	<p>[3번 선지 교체] ‘장 승상 댁 부인’과 ‘심청’이의 갈등을 심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.</p>
<p>해설편 p.67 4번 문제</p>	<p>③ 해설 교체</p>	<p>③ 장 승상 댁 부인이 떠나려는 심청을 붙잡으려 하자, 심청은 ‘글’을 짓는다. 그 글을 보고 장 승상 댁 부인은 “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네 어이 피할소냐.”라 말하며 심청이를 놓아 준다. 따라서 글은 갈등 해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.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. 또한 고전소설에서 갈등 속 대화는 중요하다. 갈등 속 대화와 갈등 해결에 집중했다면 쉽게 풀 수 있었다.</p>
<p>해설편 p.59 1번 문항 (문제편 p. 88) (04/20)</p>	<p>최 씨 부인 등의 내면을 서술하여 그에 따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</p>	<p>명자의 내면을 서술하여 그에 따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</p>
<p>해설편 p. 67 4번 문항 3번 선지 해설 (04/20)</p>	<p>지문에 ‘장 승상 댁 부인’을 향한 ‘심청’의 고마움과 미안함이 드러나기는 하지만, 글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</p>	<p>장 승상 댁 부인이 떠나려는 심청을 붙잡으려 하자, 심청은 ‘글’을 짓는다. 그 글을 보고 장 승상 댁 부인은 “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하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네 어이 피할소냐.”라 말하며 심청이를 놓아 준다. 따라서 글은 갈등 해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.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. 또한 고전소설에서 갈등 속 대화는 중요하다. 갈등 속 대화와 갈등 해결에 집중했다면 쉽게 풀 수 있었다.</p>